

효율화·프리미엄·통합… LCC, 구조침체 탈출 ‘삼각 전략’

공급과잉 속 생존 분기점

제주항공 구매기 늘려 안정성 ↑
에어프레미아 장거리 승부수
진에어 통합으로 효율 극대화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구조적 침체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기재 운영 효율화, 프리미엄 서비스, 통합에 의한 규모 확대 등 각자 자구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재무 안정성과 노선 구조 재편을 통한 생존형 체질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내 LCC 중 유일하게 구매기 전략을 고수한다. 임차기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구매기 비중 확대는 재무 안정성과 장기 운항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최근 보잉 737-8 8호기를 들여 총 보유기재는 44대, 이 중 구매기는 B737-800NG 5대와 B737-8 8대를 포함한 13대(약 29.5%)가 됐다.

구매기 확대는 리스료와 환율 부담을 낮춘다. 제주항공은 B737-8 기구매 도입으로 연간 약 14% 운용비 절감을



제주항공 B737-8 항공기.

/제주항공

기대한다. 미국 LCC 시장에서도 구매기 비중이 생존을 가른 선례가 있다. 지난 1980년대 항공 규제 완화 이후 치킨계임을 뚫은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총 810대 중 697대(약 86%)를, 2000년대 산업 재편기에 생존한 제트블루항공은 290대 중 264대(약 91%)를 각각 구매기로 운영했다. 반면 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스피릿항공은 전체 213대 중 164대(77%)가 리스기였다. 업계에서는 높은 임차 비중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또 B737 단일 기종 운영으로 정비 효율을 높이고, 중·단거리 포인트투포인트(P2P)

노선 전략을 통해 숨은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LCC 중 유일하게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며 HSC 모델을 구축했다. 넓은 좌석 간격과 개인 모니터, 무료 스낵 등 FSC의 서비스 수준을 일부 결합해 경쟁력을 높였으며, 인천~LA 노선 점유율을 지난 2022년 12.9%에서 2023년 14%, 2024년 15.3%로 꾸준히 확대했다. 성수기·비수기 변동이 작은 미주 노선 집중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미국의 제트블루항공 역시 합리적 운임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합한 HSC 모델로 경쟁력

을 구축해 공급과잉 속에서 생존한 바 있다.

진에어는 에어부산·에어서울과의 통합을 통해 LCC 업계 첫 ‘단일 통합항공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시 보유 기재는 58대로 제주항공(44대), 티웨이항공(45대)을 앞선다. 수요가 높은 노선에 투입해 탑승률과 노선 수익성을 높이고, 단거리·관광 노선 집중으로 중복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노선 재분배 역시 향후 입지와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따른 시정조치로 장거리 노선 중심의 재배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부 노선은 LCC 배정이 확정됐다. 특히 에어프레미아는 장거리 운항 이력과 기반 경쟁력을 기반으로 추가 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각사의 독창적 소구점이 생존을 좌우한다”며 “제주는 구매기, 에어프레미아는 프리미엄 장거리, 진에어는 통합·규모의 경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며 “제주·티웨이·이스타항공의 외연 확장에 따라 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해양·문화 지역활력 제고

울산·신안, 새 특구 지정

중기부, 9곳은 ‘탁월 특구’로 선정

울산 동구·울주군이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이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로 각각 지정됐다. ‘공주 알밤특구’ 등 9개 특구가 올해의 ‘탁월 특구’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172개 특구가 있다.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5년부터 해상·산악 케이블카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해 로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딩을 추진한다.

전남 신안군은 1028개의 섬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융합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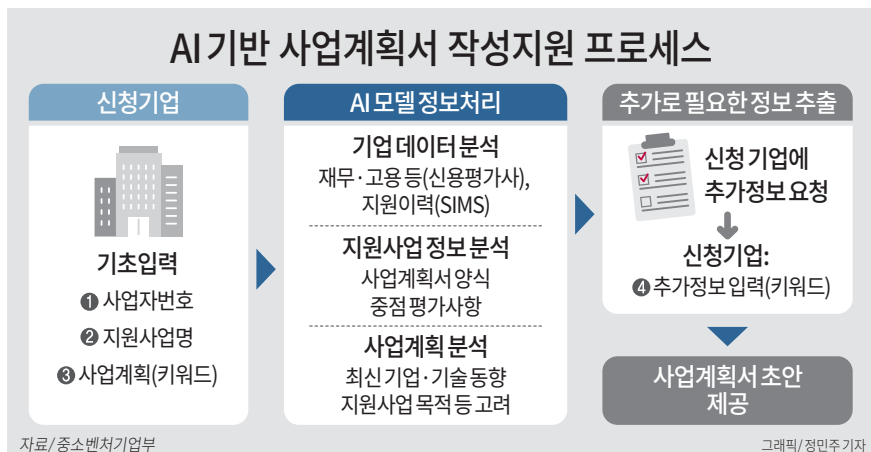
中企 지원 플랫폼 하나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기업마당으로 통합 지원절차 단순화
서류 평균 9→4.4개 행정부담 완화
브로커 차단·공공 서비스 혁신 추진

두개로 나뉘었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플랫폼이 ‘기업마당’으로 합쳐진다.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했던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지원사업 신청시 인공지능(AI)이 적합한 사업을 손쉽게 찾아준다. 브로커 등의 불법 개입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로 나뉘었던 지원사업 정보를 기업마당으로 일원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약 2700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가 모두 볼 수 있고, 21종의 확인·인증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우선 37개 신청체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시 서류 제출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정안

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모두 동참한다.

AI도 적극 활용한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인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AI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공고를 일일이 읽어가며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한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식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진공),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소진공),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기정원)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도 제공한다. 정책·법령 등을 학습한 AI 민원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지원 체계가 사람 중심의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양, 조직안정·AI혁신 투트랙 ‘인사 단행’

이운익, 화학사업 총괄 새 수장
윤석환, 삼양패키징 대표로 내정
오승훈, IT전문가로 새롭게 합류

삼양그룹이 지난 1일부로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진행됐다. 그룹은 내부 인재 중심의 안정적 경영과 외부 전문가 영

이운익
삼양사 대표윤석환
삼양패키징대표오승훈
삼양테이스트대표

입을 통한 혁신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를 통해 그룹 내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자

는 삼양이노켄,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삼남석유화학 등 전통 화학 소재 계열사로 구성된 화학1그룹장을 겸하며 삼양그룹의 화학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삼양사에 입사해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거쳤다. 그룹은 석화업계 불황 속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이 내정자를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방침이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가 차기 대표이사로 낙점됐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역임한

전략기획 전문가로, 펫용기와 아썬텍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예정이다.

화장품·퍼스널케어 전문 계열사인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이름을 올렸다.

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인 삼양데이터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이끈다. 오 대표는 한국IBM을 거쳐 유진아이티서비스와 티맥스비아이 대표이사를 지낸 IT 전문가로, 그룹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원관희 기자 wkh@

코웨이

폴컬러 초슬림 비데 선포

살균·세정·디자인 모두 업그레이드

코웨이가 초슬림 디자인에 다양한 편의 기능을 더한 ‘롤루 슬리믹 비데(BAS 49-A)’를 출시했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 롤루 슬리믹 비데는 자사 제품 중 가장 작은 크기인 83mm의 얇은 두께를 구현했다. 핵심 부품을 소형화하고 플랫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모델(BAS37-C) 대비 높이를 48% 줄였다.

분체부터 커버와 시트까지 이어지는 폴컬러 디자인은 욕실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색상은 ▲퀴즈 화이트 ▲스노우 실버 ▲브론즈 베이지 ▲티탄 실버 4가지로 구성됐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무선 터치식 리모컨도 비데에 맞춘 스노우 실버·브론즈 베이지·티탄 실버 3가지 색상으로 조합됐다. 형태는 계단·바·사각형 3종으로 사용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위생·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주기적으로 전기분해 살균수를 통해 유로·노즐·도기까지 3단계에 걸쳐 99.9% 살균한다. 노즐에는 오염에 강한 폴스테인리스를, 변좌에는 항균 처리 소재를 사용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롤루 슬리믹 비데